

# 언론사 불자회 창립 잇달아

## SBS 내달·한국경제 7월중 발족 친목 다지고 종교편향 바로잡기

SBS와 한국경제신문사에 각각 불자회가 생긴다. 현재 20여 방송·중앙일간신문사 가운데 불자회가 있는 곳은 KBS·MBC·경향신문 등 3곳 뿐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SBS와 한국경제신문 불자회의 창립은 여타 언론사의 불자회 창립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SBS 불자회는 6월3일 강남 봉은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창립법회에서 임원진을 선출하고 회칙 등을 선정해 불자회의 기틀을 잡는다. 계획이다. 현재 등록된 회원은 15명. 기존에 활동하던 불자회가 있었으나 IMF로 회원이 많이 줄어들어 활동이 중단됐었다. 방송 3사 가운데 유일 SBS 불자들의 활

동이 저조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유자호 SBS라디오 보도본부장은 협치되어 있던 불자회를 다시 일으키고자 회원들을 알음알이 모으고 창립을 준비했다. 불자인 방송지인본부장 박준영 전무이사를 주축으로 불자회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안이다. 창립 후에는 우선 친목도모를 통한 불자회 회원 늘이기에 주력할 방침이다. 불교언론인회에도 등록해 언론인 불자들의 교류를 통한 불자회 운영 노하우를 전수받을 생각이다. 이와함께 큰스님을 모시고 정기법회도 병행하고 불교공부 등도 꾸준히 진행해 SBS 불자들의 신생활을 이끌어 갈 계획이다.

한국경제신문은 김대곤 이비즈니스본부 국장이 불자회 창립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10명의 준비위원들로 구성된 준비모임을 갖고 7월 중으로 창립할 예정이다. 지도법사로는 마하보리사 주지 자명스님을 모시기로 했다. 원래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창립하려고 했으나 준비가 미진해 창립이 미뤄졌다. 창립 후에는 서로의 신행을 다지는데 주력할 계획. 특히 자명스님을 모시고 병행할 정기법회를 통해 불교공부로서 신심을 다질 방침이다.

김대곤 국장은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불자회원들을 모집할 계획은 없지만 정기법회가 정착되면 불법을 갈구하는 회원들이 하나 둘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SBS 불자회 창립을 준비하는 유자호 본 부장과 한국경제신문 김대곤 국장은 모두 한국불교언론인회 부회장과 임원으로 불자언론인들의 신행 본보기가 되고 있다. 그러기에 더욱 불자회 창립의 필요성을 느껴 발벗고 나선 것. 언론사 불자회가 늘어날수록 기존 방송이나 언론에서의 종교편향 등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nia.com)



### 280 노인영정 촬영 운불회 부산역광장서

한국노년불자회(회장 조홍인)는 7일 부산역 광장에서 노인 영정사진 무료촬영을 실시했다. 부처님 오신 날 기념 영정사진 찍어주는 올해로 4회째. 이날 동참한 280여명의 노인들에게 영주, 수건 등의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영정사진은 10일부터 동명불원에서 노인들에게 전달됐다.

한국노년불자회(회장 조홍인)는 부처님 오신 날 당일 법회 때 동명불원을 비롯 한 사찰에서 교통정리 봉사활동을 펼쳤으며 5월말경 양산 원동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영정사진 촬영 봉사활동을 가질 예정이다.

천미희 기자

###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이원주  
(명성여자고등학교교장)

연두빛 이파리가 빼곡하게 들어차 넘실대는 학교 울타리 서쪽에 성소가 마련되어 있다. 청동으로 조성된 관세음보살상이 모셔진 아늑한 공간이다. 3천명이 넘는 학생과 함께 수백의 교직원들이 우러러 보고 있는 곳이다. 보살상 북방에는 5층 동탑이 간결하게 자리하고 있다. 관음상 남방 아래쪽엔 웅장한 모습이 조성되어 있고 물레방아가 삼세울 흘러 버리듯 돌아가고 있다. 그 앞 길에는 등나무 넝쿨이 역세게 엉켜 뻗어 녹색 터널을 이루고 있다. 힘겨운 종성의 무게를 쉬게 하는 벤치가 한참 길게 배열되어 있는데 꿈같은 소녀들이 무리지어 재잘대고 노는 곳. 이곳에서 하루가 열리고 닫힌다. 정면 내마음의 불국토라 하였다. 유마경 사는 도량 아닌 것이 없다 했다. 부처님의 도량에서 불국토라 하는 것은 나에게 있어 행운이자 불보살님의 가르침과 믿고 충만한 범계의 부처님께 잠시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의상대사 법성계에 초발심 시변정각(初發心是正覺)이란 법구와 같이 처음 세운 원력을 체할까

게으름이나 근면은 그 사람의 개성이자 특성이자 선악의 판단이 될 수는 없다. 우리 부처님 제자들이 크게 경계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선이 아니면 악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이다. (유마경의 교훈이 무엇인가. 선과 악으로 구분하는 이분법을 경계하라는 가르침이다. 선악은 관점의 차이일 뿐이지 절대적이 아니다. 선이니 악이니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기준이거 살년의 가피라고 믿고 충만한 범계의 부처님께 잠시 고마움을 느끼며 살아간다. 대립하는 두개의 관점으로 보자는 것이다. 그러하기에 우리들과 인연있는 삶과 환경이 그지 그런 것이라



22일 열린 마포경찰서 봉축법회식에서 조계종 포교원은 마포경찰서 불심회를 적극 지원해준 박정원 마포경찰서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 "이웃과 함께하는 불자 다짐"

중앙병원등 직장불자회 봉축법회

중앙병원·국립의료원 법우회, 마포경찰서 불자회 등 직장직능 불자회들의 봉축법회가 연이어 봉행됐다.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이하는 중앙병원 불교법당은 개인 기념 및 부처님 오신날 봉축법회를 2일 봉행했다. 패유발원문, 패유 신행수기 발표를 비롯해 수술지원금 전달에 이어 2부에서는 선무등 문화공연과 관불의식이 이뤄졌다. 지정스님(불광사 회주)은 봉축법문에서 "부처님은 병의 원인과 발생을 이해하고 환자를 치료해 주는 바른 의사"라며 "의사와 보호자들은 부처님의 제자라는 사명감으로 직업에 몰두할 것"을 당부했다.

국립의료원 법우회(회장 황영희)는 3일 관불의식, 제동행렬 등으로 부처님 오신날 봉축 법회를 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는 8일 한탄스님(정토사 회주)의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을 주제로 한 봉축법문을 듣고 제동행렬을 했다.

이밖에 마포경찰서 불심회는 경승실과 2일 삼존불 후불탱화 봉안 집안식과 함께 봉축법회식을 거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승실이 3일 가진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기원대법회'에서 덕화스님(승덕정사 주지)과 지홍스님(조계사 주지)은 조계종 포교원장 감사패를 받았다. 철도청 구로승무사무소 법우회는 4일 연등점등식을 봉행했다. 8일에는 국립서울정신병원 불자회의 봉축법회 및 연꽃등 나눠주기 행사와 한국보훈병원 봉축법회가, 11일에는 지하철법우회가 종합운동장에서 봉축법회를 봉행했다.

### '자비의 말씀' 게시판 70곳 확대

서울지하철 6·7·8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 소속 지하철 포교용 게시판 '자비의 말씀'이 설치된다. 도시철도공사 법우회(회장 이정완)와 풍경소리(대표 성운스님)는 6일자로 도시철도공사로부터 '자비의 말씀' 게시판 부착승인을 정식으로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 승인을 받은 도시철도공사 소속 6·7·8호선은 미개통 역사가 많아 70개 역사에 대한 게시판 설치의 개통 일정에 맞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연말까지 모두 완료될 전망이다. 풍경소리는 서울 및 수도권 전철역과 인근 사찰의 자매결연을 유도해 지역적 특성에 맞춰 지하철 공간을 포교 및 문화의 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비의 말씀'은 이미 서울지하철공사 소속 115개 역사 및 서울지하철도청 소속 100개 역사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 우리 모임에선

#### 울산법륜회 헌혈봉사

울산불교개인택시 법륜회(회장 서병수)는 9일 공업로 타라에서 소속 회원, 가족, 울산신당체 회원, 일반시민,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부처님 오신날 자비의 헌혈 행사를 열었다.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보시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이번 헌혈 행사에서 모인 혈액은 전량 대한적십자사 울산혈액원에 기탁됐다.

윤행생 울산지사장

#### 제주운불회 '콜' 개통

제주운전기사불자회(회장 조주환)가 4월29일 7240-108번으로 콜을 개통하고 한 차원 높은 고객서비스에 돌입했다.

7240-108로 전화하면 어느 곳든지 달려가 찾아가기 힘든 도서 사찰까지 신속하게 고객을 모시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주운전기사불자회는 13일 제주 흥법정사(주지 관호스님)에서 개통식을 갖고 사찰과 협조해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 원우회 정각스님 초청강좌

조계종 원우회(회장 유지호)는 24일 오후6시30분 용주사 주지 정각스님과 함께 기초교리 강좌를 시작한다. 6월14일, 6월28일, 7월12일 4회에 걸쳐 진행되는 기초교리 강좌는 관심이 있는 불자 누구나에게 개방된다. (02) 732-4923

#### 서울시청 불심회 사할순례

서울시청 강남구청 성북구청 등 불자회들이 일제히 사할순례법회를 봉행한다. 서울시청 불심회는 28일 사할 순례법회를 가고, 이날 성북구청 불자회는 법흥사 적멸보궁으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강남구청 불자회는 27일 강남의 주요사찰을 돌며 정기순례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 天蔘 토종 오가피의 신비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원소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용내닐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능력"에 출연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광수 씨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藥也 (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인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인은 끝...

이 향비를 신질릴(배꼽)에 착용하면 방한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질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을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태아가 임부의 뱃속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질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불순, 생리불순, 통풍이나 관절염, 기미, 피부 및 혈액 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즐겨주세요.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생리통·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했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작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깨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괴물출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영희)

▶ 매달되는 증상에 (○) 미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생리가 예민하거나 신경성이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육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 때 배가 아프고 딱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쪼인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신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빠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탈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받는다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